

남서울 교회 클럽 이야기

남서울교회 어와나클럽은 2005년 4월 2일 불티단 40명과 T&T 51명 그리고 교사 24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2006년에 커비단과 JV(현재는 Trek)클럽도 시작하여 현재 4개의 클럽이 활동중입니다. 중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2시~4시에, 커비는 5시 30분~7시, 불티와 T&T는 5시~7시에 모여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 담임목사님과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사랑스런 클럽원들의 열정과 참여가 어우러져 멋진 클럽으로 자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서울의 에너지 발전소, T&T 클럽을 소개합니다.

빨강반, 파랑반, 초록반, 노랑반, 반 이름들이 유치하다구요? 세계에 퍼져있는 어와나의

반들은 모두 한 룰(rule)을 따라 같은 유니폼에 같은 반 이름으로 모이죠. 그래서 미국서

어와나를 참석했던 친구들도 자신의 유니폼으로 바로 한국 어와나 참석이 가능하답니다.

에너지 넘치는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의 남서울 어린이들이 각 네 개의 색깔로 나뉘어 박진감 넘치고 진지한 어와나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를 주님 품안에서 정열적으로 스트레스를 박멸할 수 있습니다.

어와나를 빛내는 최강 파워 반들을 소개합니다

스포츠 파워 파랑반 - 남학생 여학생 모두 어와나 베테랑 kids들이 우연히 집결돼 어와나 게임시간에 가장 보는 재미를 더해주는 팀입니다. 말씀 암송 점수는 다른 반들에게 양보해주는 미덕(?)을 발휘하는 여유가 돋보이는 반이죠^^ 신입 학생들은 파랑반 학생들을 주목하면 게임의 규칙과 원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최강 팀워크 노랑반 - 반전체 신장은 비교적 겸손(?)한 편이지만 개미 근성으로 조용히 점수를 다 긁어 모으고 특히 말씀 암송 점수가 가장 높아 파랑반을 자극하죠. 반 구성원들이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서로를 잘 격려해 아주 모범적인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외인부대 빨강반 - 은혜롭게도 신입생들을 가장 많이 유치한 은혜와 능력(!)의 반입니다. 불티단 출신들의 동생들이 대거 입단해 형님들의 손에 땀을 쥐는 스피드와 파워 넘치는 게임 참여에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에서도 노랑반을 위협(?)하는 대적상대입니다.

몹시정적 초록반 - 안전하고 정직한 팀원들이 모인 조용한 반으로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정도를 걷습니다. 팀원 전체 신장이 가장 안 겸손한(!) 반이지만 여유로운 이미지로 승화시키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악착같은 모습도 참 아름다운 반입니다.

파랑반의 정열과 노랑반의 암송 파워가 그들의 과제이지만 승부보다는 원칙대로 play하는 것이 초록반의 기쁨입니다

최근에 어와나를 찾으신 비기독교인 가정의 학부모님들께서 게임 시간에 아이들의 활동을 보시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를 연이어 듣습니다. 자녀들과 험한 경쟁의 시대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맘고생하며 부대끼다 모처럼 찾은 오아시스 같은 모임이라 학부모님들의 감격의 찬사를 듣습니다. 어와나를 지지하는 팬이며 학부모이자 리더의 한명으로 많은 교인들의 관심과 격려와 지지가 우리 어와나와 묵묵히 어와나를 위해 힘쓰시는 손길들에게 쏟아 지길 기도합니다



Story of Namseoul-Church

Story of Namseoul-Church



On April 2, 2005, Nam Seoul Church Awana club started with 40 Sparkies, 51 T&T clubbers and 24 leaders. On the year of 2006, Cubbies was added and JV (now Trek) was also added later. All junior high school students gather on 2-4 PM every Saturday, Cubbies gather 5:30-7:00 PM, Sparkies and T&T gather 5-7 PM and they make great noise inside church building.

Pastor Chul Lee, our senior Pastor provides full support to Awana ministry and leaders committed themselves and lovely clubbers pour their passion and participation. These made our ministry grow.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T&T Teams. Team name is Red team, Blue team, Green Team and Yellow Team. Are these names simple? Well, we know all Awana around the world wear the same color. So we proud of our colors. Our clubbers between 3th and 6th grade join one of these four color teams and participate every activities. They spend their time of Saturday afternoon in the Lord's embrace. Here meet our team.

Sport Power Blue Team – Every veteran clubbers joined Blue team unintentionally. They are very funny in Game Time and they offer the Bible memory points to the other teams. Every new clubbers need to watch Blue team to know what is Awana principle and Awana rule.

Best Teamwork Yellow Team – Even though average height is low, they collect the game points and Bible memory points like ants collect their feed. The team members don't care wether win or lose but cheer each other. Yellow team's Bible memory points are always high which challenge to Blue team.

Outsider Red Team – New clubbers are many in Red Team. Yesterday Sparkies are now trained to take part in T&T games with speed and power. Handbook time is also Red team's strong point. Yellow team fears only Red team.

Example Green Team – All Green team members are quiet and honest. They keep the rule always. The average height is very long but they are easy and love peace in Game Time. Sometime Green team is tough but still needs Blue team's passion and Yellow team's memory power.

Recently non-Christian parents visited to our club and saw his children in Game Time. They were deeply moved because their children were happy out of mental, physical and financial stress. As an Awana fan, a parent, and a leader, I pray that many church members pay attention to, support and participate our ministry. Please remember us in your prayer as well.

Awana 영작: 최영오 기자

